

## 미국과 유럽의 비교교육학 발달과정

이재봉  
교육대학원

### <요 약>

이 글은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비교교육학 발달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방법론적인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i) 타 학문 영역이 비교교육학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와 ii) 사회적 변화, 국제정세 변화, 그리고 시대적 상황등의 외적인 요인들이 비교교육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전반부는 미국과 유럽 비교교육학의 변천과정을 개관하였고 후반부에는 방법론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구관심 영역,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비 지원형태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

## Trends of Comparative Education in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Jebong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parative education in the postwar period. It particularly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societal factors that influenced comparative education. Main concerns are focused on (i) how other social and behavior sciences affect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paradigm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education, and (ii) how social change, international and national variations influence research topics and funding. The first part reviews the trends of comparative education in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by taking analytical focuses on relationship between societal factors and comparative education. The second part deals with methodologies and theoretical frameworks.

Comparative education have provided guidelines, models, or advice concerning educational policy or programs, particularly in 1950s and 1960s. Many scholars have had the proposition that education represents a major agent for the control of soci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assumptions were criticized for theoretical uncertainty and lack of evidence later. The downturn of world economy of 1970s and neo-marxists' ideological alternative approaches influenced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research concerns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1970s was a decline period of comparative education due to the budgetary losses of government program and private foundations. By the middle of 1980s there was a modest increase of interest among educators i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education as part of the excellence movement in education. Aid agencies showed signs of a renewal of interest in education. In more recent times, comparative education has become a much more international field. More third world scholars began to work in the field of comparative education, and research topics became more various.

## I. 서론

비교교육학은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발달과정 또한 이러한 학문들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중 사회학은 비교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동향(막시즘과 네오 막시즘을 포함한)은 질적 연구방법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96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어 온 구조-기능주의와 통계적 패러다임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게 되었다. 패미니스트 학자들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비교교육학에서 패미니즘 이론들과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비록 이러한 학문들이 비교교육학의 중요한 영역이 되긴 하였지만, 이는 전통적인 방법과 패러다임을 전면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연구방법과 학문영역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학과 더불어 인류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또한 비교교육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류학에서 해석되는 문화의 개념들과 방법론들은(특히 질적 방법) 비교교육학의 중요한 분석 도구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학에서 개발된 연구기법들은 계량적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역사분석과 정치학에서 세계를 구분하는 여러 패러다임들 또한 비교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이론들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학문적 패러다임과 방법들이 비교교육의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언제도 한가지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었다.

사회과학만이 비교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행동과학(특히 심리학) 또한 비교교육의 연구영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력을 비교하거나 저개발 국가들의 모국어 교육 및 이중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학의 분석적 도구들은 비교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행동과학으로부터의 방법론적 도입은 사회과학에서의 이론도입보다는쟁을 덜 일으켰다. 왜냐하면 행동과학은 기존시각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연구기술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계량경제학의 기법 또한 커다란 논쟁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비교교육학은 국제적 정세 변화와 세계 학문흐름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5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과 원조프로그램, 그리고 냉전에 입각한 국제관계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는 제 3 세계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높리게 하였다. 1960년대 까지 지속되어 온 인간자본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던 것이다. 교육을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각과 인간자본론적 관점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비교교육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였다. 대외정책의 변화,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 모색, 미국내 고등교육의 감소는 1970년대 비교교육학의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게 한다.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한 비판이론과 종속적 시각은 연구영역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타학문의 영향과 다양한 연구방법이 출현하면서 제 3 세계 여성의 역할, 지역 언어문제, 인종, 문맹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 글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을 미국과 유럽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여 보려고 한다. 특히 연구관심사,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연구영역변화, 그리고 방법론의 변화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여 본다.

## II.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

### 1. 미국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

초기 미국의 비교교육학은 다른 국가들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주 관심 영역은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였다. 초기의 연구 분야는 또한 실제적인 측면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고, 이는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Ellis (1954)의 Communism in Education in Asia, Africa and the Far Pacific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책 중 하나였다. 비교교육학자들은 미국의 국제발전을 위한 에이전시와 유네스코 등에서 제공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많이 연관되었다. 비교교육학회 (the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는 1956년에 설립되었고, 비교교육 연구지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CER)는 그해에 발간되었다.

비교교육 연구지를 창간한 Columbia대학 교수, George Z. Bereday (1964)는 비교교육학을 사회과학에 자리잡게 한 사람이다. 그는 그때까지 비교교육학의 방법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제도를 기술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비교교육학도 다른 분야의 교육연구와 같이 방법론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oah와 Eckstein (1966)은 비교교육학을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켰는데, 그들의 관심은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비교교육학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실증적이고 양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하던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반면 Anderson (1961)은 다양한 사회과학 방법론이 비교교육의 관심영역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비교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하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Bereday (1964)는 비교교육학이 고유 방법론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nderson (1961)은 비교교육학은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 단순히 사회과학의 연구주제 중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

다. 이러한 논쟁과 관계없이 당시 비교교육 연구들은 그 시대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되던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학의 구조기능주의와 경제학의 인간 자본론은 1960년대 비교교육학의 주제와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때부터 비교교육학은 교육학의 한가지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비교교육학의 흐름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즉 이때 연구들은 사회적 안정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인하여 제 3 세계 연구는 비교교육학의 주요 관심영역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원조 프로그램들과 무관치 않은 일이었다. 당시 연구 기금은 주로 중국,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 정부 연구기금과 사립단체등의 지원이 현격히 감소하는 197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 3 세계 연구가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교육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이 그 지역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연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0년대 비교교육학은 교육을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간자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미국의 국제원조 프로그램 중사자 뿐 아니라 제 3세계 정책입안가와 교육자들사이에 널리 통용되었다. 외국의 원조 프로그램과 초중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전력을 기울였던 현상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를 미국 제국주의 시대의 절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Coombs, 1964).

1970년대는 이전의 연구 영역과 관심사에 많은 변화가 생겼던 시기다. 첫 번째 변화의 계기는 미국 고등교육이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예산삭감이 학교별로 진행되었다. 교육연구는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연구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면서 침체기를 겪게 된다. 둘째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베트남 전쟁의 여파는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각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고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외국원조에 대한 예산삭감과 제 3 세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시각을 전면 재수정하였다. 이는 교육에의 투자가 직접적인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을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의 양적 팽창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기존의 낙관적인 인간자본론적 관점과는 달리 실업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비판이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출현하였다. Freire (1970)와 Illich (1970)에 의하면 학교는 해방의 장소가 아니라 억압의 장소였고, 미국의 대외 원조는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Cockcroit, Frank, and Johnson, 1972).

1970년대는 비교교육학의 침체기로 이때 정부지원 연구과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재단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거의 중단하였고, USAID는 교육연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외국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던 풀부라이트 재단에서조차 이때 예산 삭감을 경험하게 된다. 주요 대학의 비교교육 영역도 과거의 명성을 잃고 교육학내에서 주변 영역으로 밀리게 되었다. 1970년대 비록 과거와 같은 활약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비교교육학의 명성을 유지하였던 학교들은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Wisconsin 그리고 University of Michigan 등이었고, 교수들의 은퇴와 예산부족으로 비교

교육 프로그램을 폐쇄하였던 대학들은 University of Illinois 와 University of Iowa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예산지원면에서 비교교육학은 부흥기를 맞게 된다.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측면이 이때부터 강조되면서 (excellence movement) 국제비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외부 연구지원금도 서서히 교육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여 각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World Bank의 보조가 이때부터 비교교육 연구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이때 연구들은 World Bank의 대여프로그램과 많은 관계가 있었으며 지원하는 기관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주제면에서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가 관심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방법론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부터는 성 (gender)과 관련된 연구가 주 관심 영역의 하나가 되었고 질적 연구방법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학문적 성격도 어느 한쪽의 이데올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과거의 구조기능주의적 해석 또는 Marxist적인 성향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연구주제가 비교교육 연구영역에 등장한다. 가령 지역언어 분석, 성역할과 여성의 교육기회, 식민지 경험이 현재의 교육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같은 폭넓은 주제가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렇다고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과거의 이데올로기 논쟁과 이론 중심적 연구를 전면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등장한 Bowels와 Gintis (1976)의 교육 재상산적 역할에 관한 연구, Michael Apple (1979)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시각, Carnoy (1978), Altbach와 Kelly (1986)등의 이론적 설명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론중심적인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이러한 비판이론도 다양성을 더해 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초기에 이러한 연구들의 성격은 학교와 사회의 관계, 국가정책, 교육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등과 같은 거시적 접근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후에는 학교내 변인들 예를들어 교육내용, 학교교육의 직접적인 효과, 교육과정 분석등 미시적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Altbach 와 Kelly, 1988).

1990년대는 아직 진행 중인 단계로 어떠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이르지만, 연구방법과 주제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성 (gender)문제, 언어문제, 이민자 문제, 국가역할분석 및 세계화·국제화 연구, 지역연구, 정책연구, 문화분석등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면에서 90년대 역시 과거 50, 60년대와 같은 외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외정책도 과거와 같은 광범히 하고 직접적인 간섭 형태가 아니며, 구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로 해외지역 연구를 절실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 연구주제면에서는 다양해지면서 탈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은 학문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다.

## 2. 유럽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

유럽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앞서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연구영역이나 지식의 의사소통면에서 소수 국가의 언어와 학문이 세계적 연구동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비교교육학은 그런 점에서 소수국가의 언어와 학문이 전체를 주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대부분의 주요 학회지는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로 영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 유럽 비교교육학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려고

는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 면에서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가 될 정도의 비중을 갖지 못하며, 그나마 영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설명될 내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호주, 일본, 캐나다등에서 비교교육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래도 미국 중심의 비교교육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비교교육학은 미국만큼 여타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지만 순수 비교교육연구를 강조하는 런던 Holmes 그룹과 외국원조 프로젝트나 제 3 세계 교육행정가와 교육종사자들의 훈련을 담당하던 제 3 세계교육연구 학자들로 구분되어 있다 (Holmes, 1990, p. 81). Brian Holmes, Nicholas Hans, 그리고 Joseph Lauwery와 같은 학자들은 비교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다. 특히 Holmes는 영국 비교교육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초기 영국의 비교교육학자들은 두 그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Holmes 중심의 학자들로 순수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순수비교교육학자들과, 두 번째 집단은 영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이나 제 3 세계 교육전문가와 행정가들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그룹이다. 전자가 이론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후자는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런던 중심의 비교교육학은 Holmes의 은퇴와 대치 시대의 예산 및 인원 삭감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Birmingham과 Oxford 중심의 학자들이 활동하면서 영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는 이론중심의 Holmesean 전통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의 비교교육학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철학과 역사적 분석이 더 중시된다. 독일 이전에는 서독에서 더욱 활발히 비교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오래된 비교교육 연구지는 *Vergleichende Pädagogie*이다. 통일이후에는 Marxist 전통이 강한 동독 비교교육학자들이 구 서독의 비교교육학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과거 동독의 연구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사회주의 비교교육학은 종종 그들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나 정권의 수단으로 연구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서독과 통합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Halls, 1990). 유사한 문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도 발생하였다 (Hotmann and Maikova, 1990).

### III. 방법과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

비교교육학도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한 학문임은 부인할 수 없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학은 특정한 방향의 이론이나 방법론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방법과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졌다. 새로이 등장한 Neo-Marxist와 질적 연구방법은 기존의 구조기능주의 관심과 통계적 방법들을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여성학자들 또한 여성문제를 중요한 연구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질적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교교육학에서도 질적방법과 여성이론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때부터가 비교교육학이 특정한 이론과 방법론으로 전체의 흐름을 형성하던 시기에서 다양한 접근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이렇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에 대한 외부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 현상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외부 지원금에 의한 연구들은 아무래도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의 상대적 열세로 인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응용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타 학문, 특히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인류학등에서 개발된 방법론과 아이디어들은 비교교육학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1〉은 비교교육학의 연구 접근 방법과 기존 패러다임들의 변천과정이다.

〈표 1〉 비교교육학의 방법과 이론적 패러다임

- 
1. Liberal Comparative Education
  2. 과학적 비교교육학
    - 구조기능적 관점
    - 근대화 및 발달론적 관점
    - 실증주의 비교교육학
  3. 대안적 비교교육학 (비판이론, 문화인류학적 접근, 이론적 접근)
    - 종속이론
    - 세계체제 접근법 (Global and World-System Perspectives)
    - 문화인류학적 방법
    - Neo-Marxist 관점
    - 국가이론
  4. 교육의 비교역사학 (Comparative History of Education)
- 

〈표1〉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나타난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단계에는 다른 국가의 교육제도, 교육에 대한 투자, 문맹률, 학생수등과 같은 수치나 제도를 단순 기술하거나 비교하는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이다.

근대화이론 (Modernization Theory)은 1950년대 출현하여, 본격적으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기까지 비교교육학의 주요 이론적 근간을 이루었다 (Kelly, Altbach, Arnorve, 1982, p. 515). 비록 이후에 비판을 받았지만, 근대화모델은 구조기능주의, 인간 자본론등의 발달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Inkeles와 그의 동료들은 근대화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근대적 가치를 지녀야만 사회는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Inkels & Smith, 1974). 이 근대화 이론은 정부 (특히 미국)와 국제재단으로부터 막대한 연구기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더욱 고무되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교육이 근대적 가치를 갖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교육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제 3 세계의 저개발 국가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근대화 이론은 70년대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 근대화이론은 한 나라 또는 한 사회에만 초점을 갖는 분석이며, 세계체제적인 분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각 사회의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다. 또 하나의 도전은 방법론적인 것으로 좀 더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에 일어나는 역동적 현상과 문화중심적인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Rust, 1991, p. 612). 그 외 서구에서 겪었던 근대화 모형으로 제 3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이고 기계적인 구분방법이라는 지적들도 있었다 (Fagerlind and Saha, 1983, p. 17).

근대화이론이 사회학적인 접근이었다면, 인간자본론은 경제분석이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자본투자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특히 Schultz (1961)는 교육을 소비의 형태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받은 인구를 경제성장애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노동력이란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인 단위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경제적 환원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은 비교교육학 연구 뿐 아니라 교육투자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인간자본론도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직업이나 수입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Jencks et al., 1972). 그것보다는 가정배경 (family background)과 능력이 더 영향력 있는 요인들이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Jencks et al., 1979). 둘째로 인간자본론은 교육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중 경제적인 수치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유형·무형의 결과로 단순 계량화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이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인간자본론의 방법론적인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인간자본론은 계량화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요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려고 했다.

비교교육학에서 1970년대 여러 가지 방향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중 대표적 특징은 방법론 면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고, 이론에서는 구조기능주의가 약화되고 Neo-Marxism과 세계체제적인 분석방법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인간자본론, 근대화이론, 그리고 구조기능주의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즉 제 3 세계에 광범위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의 효과가 나타났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는 실패의 결과가 보이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종속이론과 신식민주의적인 해석은 세계자본주의적인 체제와 국가간 경제적, 사회적 관계등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활발했던 사회운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남미를 중심으로 한 탈종속적인 사상들과 여성운동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세계체제적인 분석과 성(gender) 등의 주제를 비교교육학의 주요 관심영역으로 부각시켰다.

신식민주의적인 해석은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로 Altbach와 Kelly (1978)는 신식민주의 교육은 제 3 세계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과거 식민지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의하여 지배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 Carnoy (1974)의 분석은 중심국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원조 및 대외 활동이 제 3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위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시도로 국가론은 국가단위로 사회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비교교육학의 중요한 이론적 접근방법이다.

국가는 단순히 정부형태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를 총괄하는 특징을 지닌다. 교육은 이러한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Kazamias는 교육학에서 국가중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형태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7, p. 11). Roger Dale도 국가 분석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역할을 분석하려면 그 사회를 규정하는 특징중 하나인 국가형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분석하였다 (1982, p. 130).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각은 아주 다양하지만 대략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pluralism)로 국가를 모든 개인의 이해를 총괄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Hobbes, 1968; Locke, 1955). 이 이론에 기반을 둔다면 학교는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는 평화로운 경쟁과 협동의 장이며, 능력에 맞는 인력을 사회에 재배치시키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적주의(meritocracy) 시각이 이 이론의 한 부분이 된다. 두 번째는 계급분석 방법 (class-centered perspective)으로 국가를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장으로 보는 시각이다 (Poulantzas, 1975; Wright, 1978). 이 시각은 학자간에 시각을 다소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교육학에서는 Bowles와 Gintis (1976)가 자본주의 학교교육을 분석하였고, Althusser (1971)는 학교교육을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가 국가는 특정 계급이나 집단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롭다고 보는 시각이다 (state-autonomy perspective). 이러한 시각은 독일학자인 Claus Offe (1984)에 의해 잘 설명이 되는 데, 그는 국가의 관료적 특징과 계급이익을 반영하려는 특성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는 집단의 이익을 반영시키려는 투쟁의 장소이면서 한 집단의 일방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커다란 힘의 집합체로 보았다. 이것이 그가 말한 국가의 관료적 특성이다.

이러한 국가주의 시각은 다양한 형태로 비교교육학에 영향을 주었다. 교육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국가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별·국가별로 식민지배를 받는 형태, 식민지배 극복과정에서 생기는 변화,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경제부문과 국가와 관계, 그리고 교육제도등을 분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Carnoy와 Samoff (1990)의 Educ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the Third World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혁명의 과정을 겪은 사회의 교육적 역할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0년대 비교교육학 연구주제중 하나인 “세계화”(globalization)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화에 관한 개념을 뚜렷하게 정의하기엔 아직도 많은 이견과 논쟁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개념적 설명보다는 비교교육학의 연구와 관계되는 것만 설명한다. 첫째로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들은 교육이 국가간 또는 지역간 어느 정도의 공통된 내용과 방향설정 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그것이 지역사회의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인 것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공유하는 국가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호간의 정보·지식 교환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지식이나 가치가 단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던 것에서 외부와 합의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보교환의 역작용적인 측면이다. 세계화는 소수 국가와 일부집단의 가치가 전체로 확산되어 전체의 지식이나 가치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활발한 정보교환과 활발한 논쟁은 이를 극복시켜 주겠지만, 정보제공적 측면에서 아직도 소수 국가와 일부 집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연구주제에서 지역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계화 주제의 또다른 영향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방향으로 각국의 교육개혁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간 집단가의 경쟁을 조장하고 교육은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미국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주장도 이러한 흐름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 IV. 결론

최근의 연구주제는 실로 다양하다. 성의 문제, 학교내 변인 (in-school variables), 학교교육의 역기능적 측면들,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국가의 역할, 그 밖의 여러 주제등이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연구방법도 과거에 비해 더욱 고도화되고 세련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 (globalization)의 과정으로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교교육의 관심을 확대하기도 한다. 미국의 연구들은 때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국가, 특히 일본의 교육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주세는 다양해진 반면 비교교육에 대한 외부 재정지원은 과거보다 (50, 60년대) 약화된 편이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비교교육학은 과거와 같은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이는 비교교육학이 상대적으로 교육학내에서 주변학문으로 밀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부 연구지원금도 World Bank와 같은 소수의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비교교육 연구가 과거보다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제 3 세계학자와 유럽의 학자들은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비교교육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비교교육학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 학계의 풍토가 대개 그러하듯 전체적인 연구영역이나 연구 방향이 한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교교육학자들의 많은 수가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이다.

비교교육학은 당분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비교교육학이 전체 비교교육학의 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미국 비교교육학 영역이 전후시기와 같은 폭발적인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대학의 교육학 프로그램 내에서 다소 주변부로 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교교육학이 향후 쇠락할 것이라는 전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교교육학은 전세계에 폭 넓은 관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지닌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ltbach, Philip G. (1991). Trends in Comparative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5: 491-507.
- Altbach, Philip G. and Kelly, Gail P. (1986). *New Approaches to Comparative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tbach, Philip G. and Kelly, Gail P. (Eds.). (1988). *Textbooks in the Third World: Policy, Content and Context*. New York: Garland.
- Anderson, A. (1961). Methodology of Comparative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7: 1-23.
- Apple, Michael W. (1979). *Ideology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ereday, George. (1964). *Comparative Method in Edu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owles, Samuel and Gintis, Herbert.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s.
- Carnoy, Martin. (1974).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 New York: Longmans.
- Carnoy, M. & Levin, H. (1985). *Schooling and Work in Democratic State*.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rnoy, M. & Samoff, J. (1990). *Educ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ckcroft, J., Frank, G., and Johnson, D. (1972). *Dependency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 Coombs, Philip. (1964). *The Fourth Dimension of Foreign Policy: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New York: Harper & Row.
- Dale, Roger. (1982). Education and the Capitalist State: Contributions and Contradictions. In Michael Apple. (Ed.). *Cultural and Economic Reproduction in Education* (pp. 127-61),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Fagerlind, I. & Saha, L. (1983).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ergamon Press.
- Freire, Paulo.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Herder & Herder.
- Halls, W. D. (ed.). (1990). *Comparative Education: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London: Jessica Kingslev.
- Hobbes, Thomas. (1968). *Leviathan*. Edited by C. B. MacPherson. New York: Pelican.
- Holms, B. (1990). In W. Halls, (Ed.). (1990). *Comparative Education: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London: Jessica Kingslev.
- Hotmann, Maikova, (1990). The Socialist Countries. In W. Halls, (Ed.). (1990). *Comparative Education: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pp. 109-144), London: Jessica Kingslev.
- Illich, Ivan. (1970).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Inkeles, A. & Smith, D. (1974). *Becoming Modern*. London: Heinemann Education Review, 24: 338-352.

- Jencks, C. et al.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
- Jencks, C. et al. (1979). *Who Gets Ahead?* New York: Basic Book.
- Kazamias, A. M. (1987). Bringing the State Back in Comparative Education. Paper present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tional Education Society, Washington, D. C., March 12-15, 1987. Unpublished maunscript. 17 pp.
- Lee, Jebong (1995). *The Transitional State and Decentralization*. Unpu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Noah, Harold and Eckstein, Max. (1966). *Toward a Science of Coparative Education*. New York: Macmilan.
- Offe, Claus.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John Kean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Poulantzas, N. (1975).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
- Rust, V. D. (1991). Postmodernism and Its Comparative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5: 610-626.
- Shultz, T.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Wright, E. O.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